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3~8/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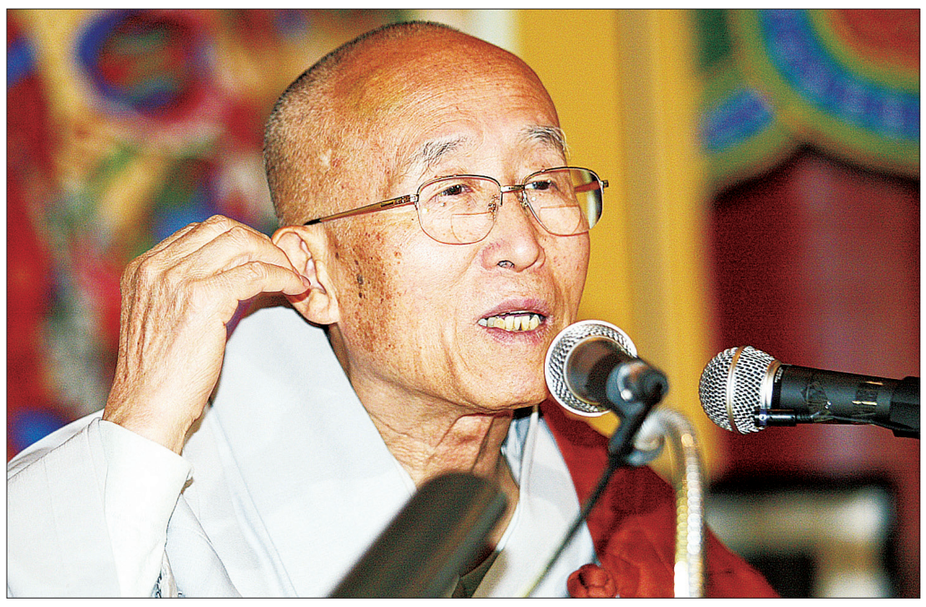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티베트 사자의 서	파드마삼마바	김영사	6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	철학으로서의 불교	마크 시더리츠	운주사	7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3	불교와의 만남	강건기	불일출판사	8	행복한 삶을 위한 부처님 말씀(1)	이철현	오색필통
4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무비	조계종출판사	9	관세음보살 42수주 진언 컬러링북	조미애	운주사
5	불교를 꿰뚫다:초기불교에서 선까지 불교의 진수	동현	불광출판사	10	요가 디피카	아헹가	선요가

책세상

'역경보살' 월운 대강백 일생 담다



못다 갚을 은혜 :월운 도중사
신규탁 엮음 / 혜성 스님 감수
도서출판 중도 펴냄
2만5000원



지난 6월 16일 원적한 월운 스님
평생 걸쳐 기록한 회고담 엮어내
스님의 49재에 맞춰 출간해 봉헌
'易經 일생' 면면들 만날 수 있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역경보살로 불렸던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대강백(1929~2023)은 지난 6월 16일 남양주 봉선사 다경실에서 원적에 들었다. 이후 8월 3일 대강백의 49재에는 한 권의 책이 영단에 봉헌된다. 바로 〈못다 갚을 은혜: 월운 도중사〉이다.

이 책은 월운 대강백의 자필 회고담으로, 원고는 대강백이 출가했던 1949년부터 쓰신 평생의 일기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월운 대강백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며 80개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연대순으로 원고를 썼다. 대강백은 해당 원고를 2010년부터 쓰기 시작해 2014년 2월 완성했으며,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에게 건네주며 사후 출간을 당부했었다.

이 책은 월운 대강백이 1949년 출가해 운허(1892~1980) 스님의 제자로 경전을 공부하던 시절부터 1957년 운허 스님의 대를 물려 통도사 강사로 학인들을 교육하던 시절, 1964년 동국역경원이 설립되자 사부 운허 스님을 도와 최연소 역경사로 〈한글대장경〉 역경 작업에 착수해 2001년 완간하기까지 자신과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엮어가고 있다.

월운 대강백은 8.15광복과 정부 수립, 6.25한국전쟁, 농지개혁, 정화운동, 10.27법란, 종단 개혁 등 불교계 안팎의 역사적 사건들을 겪을 당시 심경을 자신의 일기를 토대로 2010년 당시의 시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근대교육과 관련한 홍월초 스님과, 월초의 손자 제자 운허(이학수)와 태허(김성숙)의 독립운동과 이순재 스님의 항일재판기록 등에 관한 생생한 기록은 당시 봉선사 스님들의 시대정신을 읽기에 충분하다.

재가불자를 위한 포교 전략으로 세운 '삼화행도' 이론을 비롯해 출가불자들의 전문 교육을 위한 강원(홍법강원, 능엄학림)의 운영과 배출 제자들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불경서당'을 개원하여 뒷날 대학교수가 된 이들을 길러내던 이야기, '통신강원'이라는 이름으로 카세트 녹음테이프 약 4000개를 녹음하던 이야기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은 참으로 장엄하다.

1957년 때부터 임종하기 1년 전까지 60여 년간 집필한 총 98권에 달하는 저술의 원고를 쓰던 당시의 상황과 심정 등이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다. 말년에는 조선시대 전통 강원에서 전래되던 필사본 초서 사기(私記)를 정리하면서, 그 때에 동참했던 제자들에게 칭찬 한마디 못한 게 미안하다는 고백은 수학 제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1996년 능엄학림을 개원하면서 학인들과 경을 '짬지게' 볼 수 있었다. 학인들과 함께 전통 강원 이력 강본 대부분의 사기를 냈는데 그 모두가 능엄학림 학인들과 함께 한 것이었다. 젊어서부터 나는 늘 남의 신세만 졌는데 늘그막에도 역시 그랬다. 학인들과 함께한 시절이 행복했는데, 그들에게 따뜻한 칭찬 제대로 못한 게 마음이 아프다.〈중략〉 능엄학림을 거쳐간 학인들은 장대교망(張大敎網)하여 녹인천어(漉人天魚)할 것이다."

이 회고록을 월운 스님 자신은 '김월운의 회고담; 자초연기(自抄年紀)'라 했는데, 신규탁 명예교수가 출판 과정에서 〈월운당(月雲堂) 도중사(途中事): 못다 갚을 은혜〉로 책 제목을 붙였다. 신 교수는 대학 시절인 1970년대부터 월운 스님 앞에 경전 펼친 인연이 있고, 2018년 월운 스님의 90회 생신을 기념하여 백수를 누리시라고 망백기념(望百祈念)을 담아, 스님 생전의 저술 목록을 비롯하여 그 서문 및 서간, 휘호, 기문, 논문, 유촉문 등을 모아 〈월운당(月雲堂) 가리사(家裏事):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강백 문집〉을 헌정한 바 있다.

'월운당(月雲堂)'은 은사인 운허 스님이 지어준 당호이다. '가리사(家裏事)'는 수행자 내면의 살림살이이고, '도중사(途中事)'는 수행자로 살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사건이라는 뜻이다. 이로서 엮은이 신 교수는, 훗날 학자들이 월운 대강백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학계에 제공한 것이다.

알아차림 이끄는 싱잉볼 사용안내서



노래하는 그릇
프랭크 페리 지음
김경숙 옮김
도서출판 홍법 펴냄
1만5000원

"싱잉볼은 자신의 본질적인 부처의 본성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틱낫한 스님

싱잉볼에 관한 종합 안내서가 번역서로 출판됐다. 싱잉볼 이야기 〈노래하는 그릇〉은 1970년대 싱잉볼 선구자로 알려진 프랭크 페리가 지은 책 〈Himalayans Sound Revelations〉를 번역했다.

〈노래하는 그릇〉은 전반적으로 싱잉볼에 대한 교재와 같은 책으로 싱잉볼에 대한 정의부터 명료하게 안내하며 재질 및 다양한 형태, 역사에 따른 변화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법과 연주방법, 싱잉볼 선택방법을 적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차크라와 싱잉볼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수행 방향 및 방법을 안내했다.

책은 원문 내용을 쉬운 언어로 번역해 충실하게 담았으며 △제1장 싱잉볼은 무엇인가 △제2장 싱잉볼은 어떻게 활용하는가 △제3장 싱잉볼의 소리만들기 △제4장 차크라와 싱잉볼 △제5장 다양한 종류와 싱잉볼 △제6장 싱잉볼 선택 △제7장 싱잉볼로 수행하기로 구성됐다. 마지막에는 역자가 대표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싱잉볼치유의소리 활동내용이 담겼다.

역자 김경숙 대표는 무엇보다 불교의 법구(法具)로 싱잉볼의 가치를 강조했다. 역자는 싱잉볼을 붓다볼로 부르며 '알아차림' 수행을 강조한다.

김경숙 대표는 "싱잉볼은 대중적으로 알려져있는 이름이며 저는 붓다볼로 부른다"며 "붓다는 깨어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 책이 깨어있고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볼(bowl)은 음악적으로



역자 김경숙 싱잉볼치유의소리 대표가 싱잉볼을 연주하고 있다.

불교 法具로 싱잉볼 가치 강조
"종로시로 고요함 가질 수 있어"

는 종(bell)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종소리를 통해 마음에 선명함과 고요함을 가질 수 있으며, 존재를 지금 현재 순간으로 이끌어온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알아차림의 순간이다"고 말했다.

저자 프랭크 페리는 1948년 런던 햄프스테드에서 태어나 1964년부터 음악을 시작했다. 블랙 캣 본즈 등 그룹에서 타악기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1970년대 싱잉볼 연주의 선구자로 알려져있다. 소리와 음악 등을 연구했으며 명상가로 영적 치유에 앞장서왔다.

역자 김경숙은 사단법인 싱잉볼치유의소리 대표이며 네팔에서 히말라야 싱잉볼 마스터 코스 등 다양한 테라피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불교상담전문가 1급이며 동국대학교 불교학 박사를 수료했다. 신라대 음악과 외래교수이며 동국대 불교상담연구원 연구원, 한국불교상담학회 이사이다. 부산시와 경남에서 주관하는 공공 기간단체 힐링연수와 교사 힐링 연수 프로그램, LG CNS 기업 외 기업 등에서 다양한 예술치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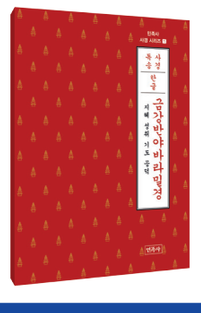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